

제1차 공무원 인터넷 조회 말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인터넷 조회를 시작합니다. 왜 인터넷 조회를 하는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화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디지털 시대, 디지털강국을 얘기했습니다. 전자정부도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내용 중에서도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오늘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 전자정부 실현의 획기적인 발전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조회를 자주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국무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정

확히 전달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라야 그 취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발전해 있지만, 수많은 미디어가 수많은 뉴스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진실 그대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결정사항들이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문이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넷 조회를 계기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행사에 친근감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방법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오늘 인터넷 조회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공무원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또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단순히 지시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의사, 민심과 같은 것을 정확하게 대통령과 국무위원회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디만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과 정치를 좀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들한테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은 국무회의도 특별한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지 않는 경우 공무원 여러분께 1차적으로 개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해 왔던 몇 가지 중요한 일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핵 문제였습니다. 제가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것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나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그 노력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누구의 발언이든간에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끊임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불안했고, 그것이 투자자들에게도 불안을 주어서 경제의 불안으로까지 연결되고, 심지어 어느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무력행사에 관한 얘기는 많이 사라지고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에서 평화적 해결원칙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제가 해결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측이나 단편적인 발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과정을 통해 공식화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여러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불안과 어떤 위협적 요인들을 해소한다는 것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적 상황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것 같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다녀오고 난 뒤에 굴욕외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을 그렇게 훼손한 일이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예의 있게 하는 만큼 저도 예의를 갖추어서 미국을 칭찬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언제나 당당했듯이 미국에 가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정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에 간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달리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 이상의 국가적 관계를 바꾼다거나 또는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남은 문제가 많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심해서 점차 풀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막말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 일본의 국민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상당히 안정된 합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제 스스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쌍방은 서로 유효한 협상카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핵연료봉 처리를 마쳤다고 말하는 이런 것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협상의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간에 있어서도 추가적 조치라든지, 또는 미·일간에 강경한 조치라든지 하는 언급들을 통해서 협상에 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두고 상황이 더 강경해졌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이 침체하고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금융부문에 불안요인이 생겨서 금융위기 혹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언론들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적어도 그 점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불안이 훨씬 감소했다는 것도 안정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아울러 카드채, 가계대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있어서 산업의 활력이 아직까지 회

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안한 징후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아무 것이나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경기부양정책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많은 경제인들이 동행했고, 일본에도 동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원칙에 따른 개혁의 진행을 강조한 것은 투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기술혁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을 뒷받침할 정치·사회·문화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경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걱정스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차별시정위원회와 노동분야의 태스크포스, 농업분야의 태스크포스를 함께 묶은 국민통합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때 갈등에 미봉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스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것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 못한다는 타박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기에 조금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국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국무총리에게 보다 더 많은 일을 넘기고, 장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분권과 자율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업무 관행과 인식으로 인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율과 분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아마 혼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할 일, 국무총리실이 할 일, 그리고 각 부처가 할 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분권하고 자율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정부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중에서 청와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멀리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국정을 운영해 보면 각 부처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등 비전의 기능은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청와대가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와 갈등에 관해서는 총리와 장관들이 잘 해소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착실히 검증하고 시정조치를 해 나가는 일도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의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또 되고 난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개혁에 관한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강력한 희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여러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개혁을 위한 어떤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개인의 결의와 각오만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공직사회 개혁, 바로 정부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겠다는 결의와 자세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전 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해 보십시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힘과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합시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하든 즉시 건의해 주십시오. 직접 비판해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신뢰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신뢰합니다. 전혀 고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최상의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앞으로 좀더 좋은 방식을 갖추고 주제를 잡아 쌍방향 토론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인터넷 조회 때 명쾌한 답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쌍방향으로 대화합니다. 앞으로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